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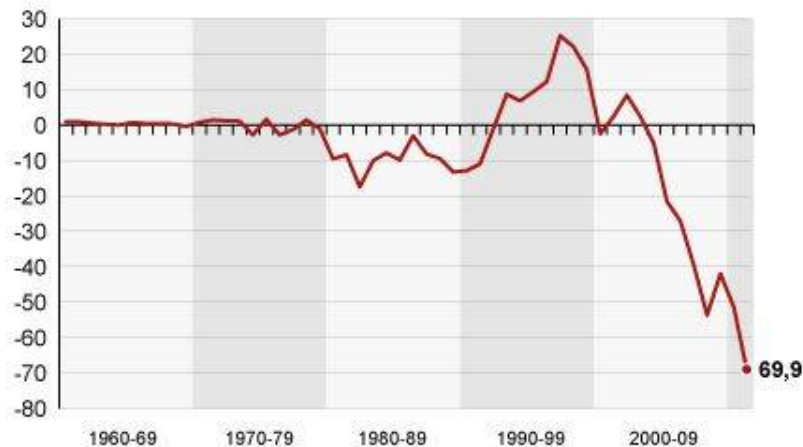
프랑스, 사상 최대 무역적자 기록

(2012. 2. 10)

- 프랑스 일간지 Le Figaro는 2012. 2. 7자 기사를 통해 자국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
 - 동 일간지는 프랑스 경제통상담당 장관 Pierre Lellouchs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도 프랑스 무역적자 규모는 696억 유로를 기록, 전년대비(전년도 무역적자규모 515억유로) 35% 증가했다고 보도
 - 이에 대해 Pierre Lellouchs 장관은 이같은 프랑스의 적자폭은 당초 예상보다 55억유로가 적은 수준으로,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

<프랑스의 무역수지 변동 추이>

Balance commerciale française de 1960 à 2011, en milliards d'euros



□ 또한 그는 프랑스 기업 117,000개 이상이 수출을 하고 있고 2011년도 수출액은 전년대비 8.6% 증가한 4,288억유로를 기록(동년도 수입액은 전년대비 11.7% 증가한 4,984억유로)하였으며, 이 부문에서 금년도에 90,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

○ 그러나 프랑스의 경쟁력이 신흥국가들(BRICs)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, BRICs 국가들이 프랑스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7%(독일의 경우 12%)에 그치고 있어 독일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

○ 특히, 중국과의 무역에서 2011년도에 사상 최대인 272억유로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나, 프랑스가 식품 및 항공 부문*에서는 각각 114억유로 및 177억유로의 흑자를 기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

* Air Bus사의 534기종 판매에 기인

○ 또한 그는 프랑스 상품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프랑스의 높은 인건비(독일에 비해 10% 높음)와 프랑스 대기업들이 독일 기업들에 비해 해외 투자금액이 두 배 이상 높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랑스 경제구조 개혁을 가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

<자료출처 : Le Figaro, 2. 7, Le Monde 2. 7>

[파리사무소]